

CONTENTS

1. 국내펀드 동향
2. 해외펀드 동향
3. 펀드자금 동향

〈국내펀드〉 대형주 위주의 시장 강세
주식펀드 수익률 양호

〈외국펀드〉 신흥국 증시 강세 여전
인도 중국 펀드 상위권

〈자금동향〉 신흥국펀드 자금 급증
국내 주식펀드 자금 이탈

공 지 사 항

MY펀드·관심펀드 내 역외펀드 서비스

※ 펀드닥터(www.funddoctor.co.kr)의 제공하고 있는 MY펀드 서비스에서 역외펀드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MY펀드/관심펀드에 역외펀드 등록가능

-MY펀드/관심펀드 펀드찾기에 역외펀드 검색창 추가

-MY펀드 및 관심펀드에서 선택하여 볼 수 있는 정보

*MY펀드 : 수익률, 위험지표, 상품정보, 투자손익, 펀드별 손익, MY펀드 관리

*역외펀드: 외국법률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돼 국내에 수입 판매되는 펀드

※ MY펀드 및 관심펀드에서 역내펀드 그룹관리와 역외펀드 그룹관리는 별도로 관리됨

이 보고서는 펀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고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해 행해진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1. 2007년 10월 국내 펀드 동향

대형주 위주의 시장 강세...주식펀드 수익률 양호 - 주식펀드, 코스피지수 수익률 상회

1) 개황

코스피시장이 대형주와 중형주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10월 주식펀드도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코피스지수의 최고치 경신에 따라 주식펀드,
10월 10.32% 수익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2007년 11월 1일 아침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한달 간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주식성장형(약관상 주식투자상한 70%초과)은 10.32%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의 상승폭인 6.08%과 비교해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이는 코스피 시장이 대형주와 중형주가 동반강세를 보이며 상승함에 따라 성장형 펀드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성장형보다 낮은 안정형(주식투자비중 41~70%)과 안정형(주식투자비중 10~40%)은 각각 4.63%와 2.36%의 성과를 냈다. 이외에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 펀드는 같은 기간 5.3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펀드 10월 한달간
0.52%(연환산 6.08%)로
양호한 성과

채권펀드도 10월 한달 간 0.52%(연환산 6.08%)의 양호한 수익을 거뒀다. 코스피지수의 호조세와 유가 상승, 한은의 긴축기조 지속 전망 등의 영향으로 금리는 5년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월 중반 이후 금리급등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과 신용불안 우려 확산 및 주가급락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전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 보면 국공채형은 0.48%(연환산 5.60%), 공사채형은 0.52%(연환산 6.15%)의 수익을 보였다.

■ 유형별 평균 수익률, 설정액 및 순자산총액 증감

기준일 : 2007년 10월 1일 ~ 2007년 11월 1일			(단위 :억원, %)			
구분	설정액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성장형	361,332	533,128	10.32	12.44	65.74	58.09
안정형	17,898	21,119	4.63	5.35	35.96	29.88
안정형	36,677	41,994	2.36	2.85	17.92	15.50
인덱스	27,232	41,078	5.33	6.97	50.76	41.94
코스닥	135	153	2.89	-0.64	51.37	45.26
후순위채	6,960	7,179	0.49	1.03	7.46	6.43
하이일드	11,448	11,843	0.56	1.16	7.51	6.64
시장중립	8,611	9,074	0.76	1.79	6.10	5.57
KOSPI			6.08	6.81	51.32	43.95
KOSDAQ			1.95	-0.18	38.21	33.64
채권형 전체	33,417	34,013	0.52	0.87	3.74	3.25
공사채형	29,681	30,150	0.52	0.87	3.75	3.25
국공채형	3,736	3,863	0.48	0.91	3.68	3.23
MMF	508,778	523,505	0.41	1.20	4.54	3.81
KIS채권지수(1년종합)			0.49	1.27	4.79	4.12

□ 채권형 연환산 수익률			(단위 :억원, 연 %)			
채권형 전체	33,417	34,013	6.08	3.46	3.74	3.91
공사채형	29,681	30,150	6.15	3.44	3.75	3.92
국공채형	3,736	3,863	5.60	3.60	3.68	3.89
MMF	508,778	523,505	4.85	4.76	4.54	4.59
KIS채권지수(1년종합)			5.75	5.05	4.79	4.96

주1) 채권형, MMF, KIS채권지수의 수익률 표시는 제목에 따름. 나머지는 단순실현 수익률임

주2) 설정액은 제로인 평가대상 펀드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자산운용협회의 설정액과 다름

주3) 기준일은 펀드 기준가격 적용일, 증시지표 및 자금증감 기준일은 기준가 적용 직전영업일임

1. 2007년 10월 국내 펀드 동향

2) 주식/ 채권시장 요약

주식시장

코스피지수 사상최고치
경신하며 10월 마감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며 등락을 거듭했던 10월 주식시장은 월하순 美 FOMC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글로벌증시 동반상승에 힘을 얻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 달을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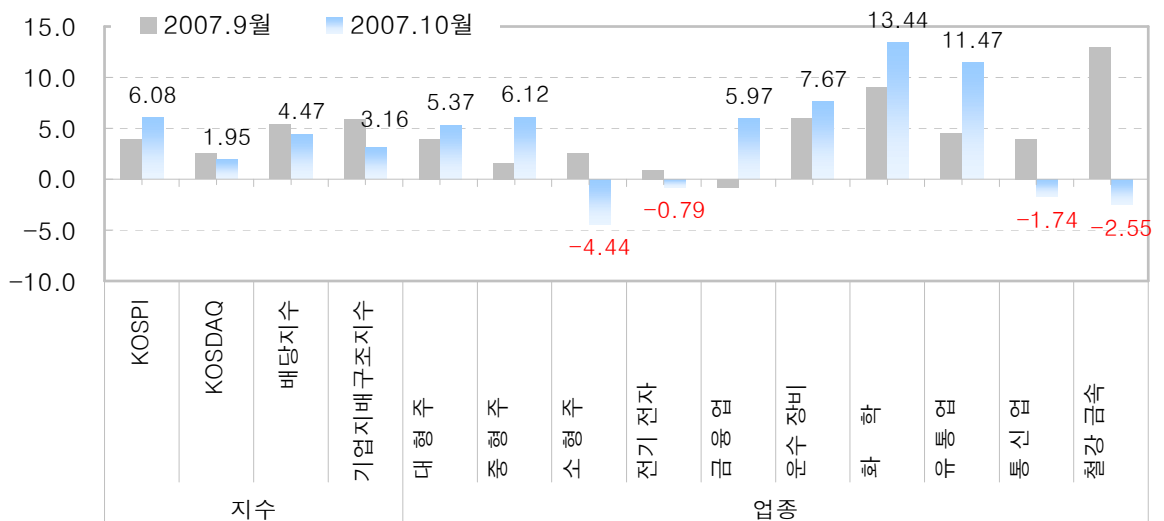
지난 9월 중반 美 FOMC가 기준금리와 재할인율을 각각 0.5%포인트를 인하한 후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여파로부터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회복되고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美 다우지수의 사상최고치 경신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10월 주식시장은 강세로 시작했다. 이후 월 중반까지 국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및 양호한 기업실적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 주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비교적 상승추세를 이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10월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66.29포인트 하락한 1903.81포인트로 급락했다. 미국경기침체, 미 달러 약세, 유가상승 등이 악재로 작용한데다 여기에 중국증시과열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월말 3분기 GDP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11.5%증가한 것으로 발표되고 IMF가 한국경제성장률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워런 버핏의 국내 증시 저평가에 대한 발언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코스피지수는 역사적 최고점인 2064.85포인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대형주와 중형주 위주의
강세장 보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대형주와 중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각각 5.37%, 6.12% 상승한 반면 소형주는 -4.44%로 그 하락폭이 심했다. 업종별로 보면 그 동안 소외받았던 음식료가 내수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10.26% 상승했고 중국관련 수혜업종인 기계, 운수창고업 등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여기에 2008년 보험업법 개정을 앞둔 보험 업종이 한달간 30.88%의 수익률로 지수상승을 한몫 거들었다. 반면 종이목재, 의료정밀 업종은 그 동안의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주요지수 및 업종별 수익률 비교



1. 2007년 10월 국내 펀드 동향

채권시장

대내외적 악재로 혼조세
보이다 채권금리, 강보합
으로 마감

10월 채권시장은 코스피지수의 상승세, 한은의 긴축기조 유지 등이 악재로 작용했고, 미국 주택시장 침체여파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조정, 달러 약세, 중국의 추가 긴축 등이 호재로 반영됨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다 강보합세로 한 달을 마감했다.

월 초반 수출과 산업생산 등 국내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 전망 및 한은의 국고채 직매입, 채권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의 영향을 받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예상대로 콜금리 목표치를 동결시켰으나 시중 유동성 증가 등에 따른 한은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 지속에 무게가 더해지며 금리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채 금리 급등 및 연이은 국내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이 이어지면서 금리는 5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월 중반 이후 금리가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 경제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하자 채권시장에 단기적인 호재로 인식되며 금리도 동반 하락했다. 하지만 월 하순 발표된 3분기 실질 GDP에서 수출 및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자 금리 하락은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채권시장은 뚜렷한 강세를 나타내지 못한 채 10월 장을 끝마쳤다.

■ 종류별 채권 수익률 추이

단위 : %

일자	국고5	국고3	국고1	통안2	통안1	회사채AA-	회사채BBB-	CD	CP
2007.09.28	5.53	5.46	5.38	5.54	5.42	6.03	8.28	5.35	5.61
2007.10.31	5.48	5.43	5.34	5.55	5.40	6.06	8.28	5.35	5.63
등락폭	-0.05	-0.03	-0.04	0.01	-0.02	0.03	0.00	0.00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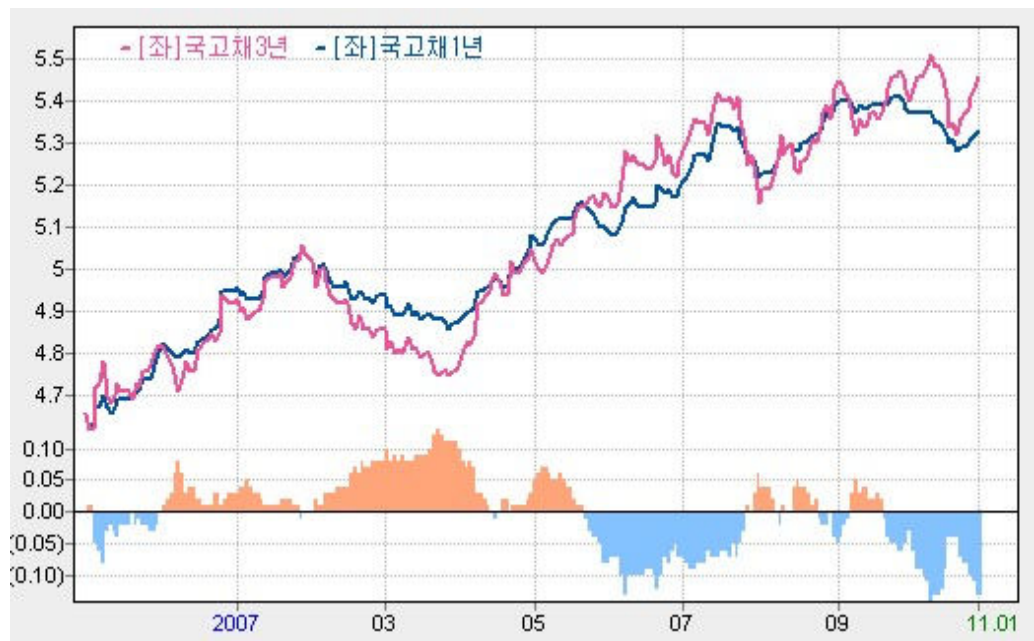


그림: 본드웍

1. 2007년 10월 국내 펀드 동향

3) 주식펀드 성과

- 성장형 펀드

10월, 대형주강세장에
중소형 가치주 펀드는
하위권 맴돌아

설정원본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250개 성장형 펀드 대부분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중 188개 펀드가 코스피지수 상승률인 6.08%보다 높은 수익을 올렸다. 3분기 이후 대형주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스타일별로 펀드의 성과가 양분되었다.

개별 펀드별로는 '삼성착한아이예쁜아이주식종류형 1-A클래스'펀드와 '삼성착한아이예쁜아이주식종류형 1-C클래스'펀드가 각각 월간 17.18%, 17.12%의 높은 수익률로 1위, 2위를 차지했다. 이 펀드들은 펀드내 편입비율이 높은 운수창고업, 화학업종 등이 각각 24.92%, 13.44% 상승하며 펀드성과에 보탬이 됐다. 이에 1개월 %순위도 지난달 5,6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뒤를 이어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주식K-1' 펀드가 월간 17.12%로 3위를 기록했다. 이 펀드는 3개월 성과에서도 25.96%의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줬다.

반면, 중소형 가치주 펀드들은 대부분이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최근 1개월간 대형주는 5.37% 상승했지만 소형주는 4.44% 하락했다. 여기에 코스닥 수익률이 1.95% 상승에 그침에 따라 중소형 가치주 펀드들이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유리Growth&Income주식' 펀드는 스타일상 대형혼합주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소형주와 코스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 성장형 펀드 3개월 성과 상위 Top10

(단위: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연초후	스타일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주식K-1	미래에셋자산	23,131	17.12	25.96	78.16	대형성장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주식형(C-A)	미래에셋자산	3,693	16.63	25.96		대형성장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미래에셋자산	17,150	16.58	25.29	84.49	대형성장
삼성착한아이예쁜아이주식종류형 1-A클래스	삼성운용	164	17.18	20.60	62.70	대형혼합
삼성착한아이예쁜아이주식종류형 1-C클래스	삼성운용	274	17.12	20.37	61.73	대형혼합
미래에셋드림타겟주식형	미래에셋자산	1,234	14.21	20.25	79.67	대형혼합
삼성배당주장기주식 1	삼성운용	4,309	15.16	19.57	84.10	대형혼합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종류형 1A클래스	삼성운용	2,403	15.38	19.17		대형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 2	미래에셋자산	16,769	13.11	19.01	73.24	대형혼합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종류형 1C클래스	삼성운용	1,384	15.31	18.95		대형혼합

■ 성장형 펀드 3개월 성과 하위 Top10

(단위: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연초후	스타일
유리스몰뷰티주식 C	유리운용	1,259	-3.73	-10.88	34.78	소형가치
유리스몰뷰티주식 A	유리운용	410	-3.69	-10.78		소형가치
한국부자아빠거꾸로주식증권K-2	한국운용	1,428	-2.48	-6.99	27.22	중형가치
한국부자아빠거꾸로적립식주식W-1ClassA	한국운용	1,464	-2.17	-6.58	28.22	중형가치
한국부자아빠거꾸로주식A-1ClassA	한국운용	1,470	-2.31	-6.54	28.22	중형가치
골드플랜연금주식A-1	한국운용	1,176	-2.27	-6.43	26.82	중형가치
미래에셋3억만들기배당주식 1(CLASS-A)	미래에셋자산	2,888	-0.21	-4.39	25.27	중형가치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 1	한국밸류자산	10,948	-3.50	-4.07	51.11	
KOSEF중형순수가치	우리CS운용	131	0.11	-3.75		중형가치
유리Growth&Income주식	유리운용	406	0.70	-3.74	28.41	대형혼합
전체		533,128	10.32	65.74	58.09	

1. 2007년 10월 국내 펀드 동향

4) 채권펀드 성과

채권금리 강보합세,
채권펀드 수익률에 도움

설정원본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이 넘는 41개 채권펀드 가운데 27개 펀드가 콜금리 (연환산 5.01%) 수준을 웃도는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이 기간 국고채3년물이 0.03%포인트, 국고채 1년물은 0.04%포인트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채권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채권수익률에 보탬이 됐다.

‘아이테일러채권3C-1’
1개월, 3개월 성과 모두
1위 차지

그 중 ‘아이테일러채권 3C-1’펀드가 10월 한달 간 0.63%(연환산 7.45%)의 가장 높은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익이 펀드 수익률에 뒷받침됐다. ‘아이테일러채권 3C-1’ 펀드는 1.37%(연환산 5.89%)로 3개월 성과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이어갔다.

‘푸르덴셜정통액티브채권 1B’펀드가 1개월 0.62%(연환산 7.25%)로 2위에 올랐다. 이 펀드는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선물매도 전략이 펀드 수익률에 도움이 됐다.

듀레이션 작고
신용등급 낮은 채권펀드
수익률 비교적 양호

10월 채권시장이 강보합세를 보임에 따라 잔존 만기가 짧은 펀드와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이자수익이 높은 저등급의 채권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이 1,3개월 성과 부분 모두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잔존만기가 길고 신용등급이 높은 장기우량채를 보유한 펀드들이 하위권을 차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로인 김주진 펀드애널리스트 : www.funddoctor.co.kr]

■ 채권형 펀드 3개월 성과 상위 Top10

□ 연환산 수익률 (연 %)

(단위: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연초후	듀레이션	신용등급
아이테일러채권 3C-1	아이운용	381	7.45	5.89	6.41	1.40	BBB-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 3ClassC 2	아이운용	675	6.85	5.51		1.76	BBB-
하나UBS 중기채권투자신탁(제1호)	하나UBS	696	5.75	5.40		0.41	BBB+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 2ClassC2	아이운용	1,803	6.87	5.33		2.15	BBB-
하나UBS채권혼합 4	하나UBS	377	5.61	5.30		0.06	AA-
아이프리미어채권 1ClassC3	아이운용	100	7.09	5.29	5.49	1.49	BBB0
하나UBS 중기채권(제2호)	하나UBS	106	5.53	5.26		0.12	BBB+
동양모아드림채권 1	동양운용	213	6.26	5.23	4.71	1.21	BBB+
ING ECF단기유동성혼합 3ClassA	랜드마크운용	196	5.12	4.94	4.85	0.09	AAA
하나UBS단기채권혼합 1	하나UBS	3,280	5.24	4.92	4.78	0.24	A+

■ 채권형 펀드 3개월 성과 하위 Top10

□ 연환산 수익률 (연 %)

(단위: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연초후	듀레이션	신용등급
Tops적립식채권 1	SH운용	281	4.66	1.37	3.03	2.48	AA0
Tomorrow장기우량채권K- 1 ClassA	교보운용	8,932	6.75	1.93	2.55	3.49	AAA
흥국플렉스채권 1	흥국운용	963	5.23	1.96	3.56	2.68	AA-
Tops국공채중기채권 1	SH운용	188	3.65	2.13	3.70	2.75	AAA
KB막강국공채적립	KB운용	190	4.80	2.21	2.84	2.47	AAA
KB장기주택마련채권 1	KB운용	410	4.81	2.71	3.10	1.59	AAA
뉴개인연금채권S- 1	하나UBS	118	4.78	2.77	3.28	1.66	A-
Tops국공채채권 1	SH운용	192	4.63	2.83	4.28	2.79	AA+
하나UBS장기주택마련채권 K- 1	하나UBS	150	4.73	3.03	3.31	1.32	A-
삼성우량채권 1	삼성운용	429	4.63	3.31	3.67	1.48	AA+
전체		34,013	6.08	3.74	4.96	2.22	AA0

포트폴리오 STYLE(%) : 직전월

2. 2007년 10월 해외 펀드 동향

신흥국 증시 강세 여전...인도 중국 펀드 상위권

1) 해외 주식 시장 성과

美 경기침체, 中 증시과열 우려로 변동성 커져

뉴욕증시의 신고가 경신 등으로 강세를 보이던 글로벌 증시는 월 중반 이후 중국의 긴축가능성, 미국의 경기침체와 기업실적 악화 우려로 인한 뉴욕 증시의 약세와 유럽의 실망스러운 실적발표의 영향으로 하락 반전했다. 하지만 FOMC가 기준 금리와 재할인율을 각각 0.25%포인트 인하하고 미 GDP성장률 또한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미국의 경기침체우려는 다소 누그러졌다.

월초 미국의 고용지표가 9월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뉴욕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거듭하던 뉴욕증시는 기업실적 악화, 글로벌 증시에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더불어 배럴 당 9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이어 메릴린치사가 23억 달러 적자를 본 것으로 실적이 발표되자 서브프라임 우려가 재부상하며 조정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월말 FOMC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되며 안정을 되찾았다.

증시과열과 긴축기초로
중국 증시 상승세 한풀 꺾여

같은 기간 MSCI 글로벌 주식 지수는 0.93% 상승하는데 머물렀지만 MSCI 글로벌 신흥국 주식 지수는 7.75%로 강세를 보였다. 신흥국 증시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인도, 중국증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원자재 강세영향으로 러시아와 브라질 증시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 증시는 월 중반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과 과잉 유동성 문제 등이 추가 긴축과 맞물리며 상승세가 한 풀 꺾였다. 상해 A 지수는 한달 동안 7.27% 상승했고 홍콩H지수는 18.00% 상승했다. 홍콩증시는 글로벌 유동자금의 이동, 중국의 QDII투자확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인도 증시는 월초 미국과의 핵 협력에 대한 의견차에서 촉발된 정치적 불안감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으나 엄청난 양의 자금이 유입되며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월 중반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규제방안을 발표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증권당국이 외국인 투자제한 수위 완화 및 규제 철회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급등세를 나타냈다.

인도증시
큰 폭의 자금유입으로 급등세

■ 세계 주요지수 기간별 성과

기준일: 2007년 10월 31일

(단위: %)

지역별 주요지수	1개월	3개월	연 초후	2006년
MSCI 글로벌주식	0.94	5.16	9.66	14.40
MSCI 신흥국주식	7.75	17.79	36.67	25.57
MSCI 북미주식	-0.76	4.08	8.69	13.32
MSCI 남미신흥국주식	6.62	20.10	50.15	29.87
MSCI 유럽주식	1.22	4.89	5.94	15.94
MSCI 유럽신흥국주식	7.70	11.88	16.38	29.87
MSCI 아시아태평양주식	3.74	6.00	15.30	12.75
MSCI 아태(일본제외)주식	7.10	17.16	36.58	22.85
MSCI 아시아신흥국주식	9.44	20.04	47.20	24.39
MSCI 일본주식	-0.12	-4.73	-2.87	6.09
MSCI 인도주식	14.53	28.63	42.86	46.47
상해 A지수	7.27	33.32	122.07	130.57
항셱 중국기업(H)지수	18.00	50.27	88.86	93.99
DJW 글로벌REIT지수	-1.80	8.71	-0.80	39.09
일본 REIT지수	-2.74	-5.11	1.65	28.83

주: MSCI 글로벌주식-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전세계 48개국 주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지수

자료: 제로인

2. 2007년 10월 해외 펀드 동향

2) 해외 채권 시장 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국제유가 또한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대외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2007년 10월 해외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다.

FOMC 10월 0.25%p 금리인하
추가 인하 가능성 줄어

월초 상승세를 보이던 미 국채 금리는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주택침체에 대한 우려 발언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제히 급락세로 반전했다. 이후 금융기관의 실망스러운 실적발표, 유가 최고치 행진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금리하락을 부추겼다. 이어서 9월 주택판매가 악화 된데다 메릴린치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 뉴욕증시의 낙폭확대로 금리인하 더욱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FOMC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4.25%로 0.25%포인트, 재할인율도 종전의 5.25%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나온 성명서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영란은행 (BOE) 5.75%

유럽중앙은행 (ECB) 4.00%

기준금리 동결

유럽중앙은행 (ECB)은 10월 4일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영란은행(BOE)도 같은 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용경색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를 5.75%로 동결했다. ECB는 지난 6월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4개월 연속 동결했다. ECB는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유로 지역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고 유로화 강세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 동결로 유로 지역 장단기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은행 (BOJ) 금리동결

일본 중앙은행(BOJ)은 10, 11일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해 일본의 금리는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물가상승으로 나타나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올들어 여덟번째
지급준비율 인상

중국인민은행은 13일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인상 조치는 2006년 7월 이후 10번째, 올 들어서만 8번째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 지속 따른 경기과열 우려 확산에 따라 시중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추가 금리인상, 위안화 절상
가속화 전망

전세계 국채 수익률을 나타내는 JP Morgan GBI 글로벌 지수는 10월 중 0.63%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머징 시장의 채권 지수를 나타내는 EMBI 글로벌 지수는 2.17%의 수익을 기록했고 아시아국가 채권 지수인 JACI는 1.50%의 수익을 보였다.

■ 세계 주요지수 기간별 성과

기준일: 2007년 10월 31일

(단위: %)

지역별 주요지수	1개월	3개월	연초후	2006년
GBI Global	0.63	2.07	3.16	2.21
EMBI Global	2.17	5.98	5.94	9.88
JACI	1.50	4.06	4.85	7.29
국공채02Y	0.51	1.10	3.72	4.94

주: GBI - JP Morgan Government Bond Index Global (KRW Hedged)

EMBI -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JACI - JP Morgan Asia Credit Index (JACI) Composite

2. 2007년 10월 해외 펀드 동향

3) 해외 주식 펀드 성과

중국, 인도, 브릭스 펀드

상위권 수익률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
주식 1(CLASS-A)’

10월 17.51%로 1위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1일 아침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설정원본액 100억원 이상인 해외 주식 펀드의 10월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중국과 인도 투자펀드들이 상위권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주식 1(CLASS-A)’ 펀드가 17.5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0월 성과순위 1위를 차지했다.

기온SG운용의 ‘인디아인프라주식A’ 펀드도 같은 기간 16.31%로 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브릭스 등의 신흥국 증시가 강세 보이며 이들 지역 투자펀드의 10월 수익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 또한 국제 유가가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산업 및 기업에 투자하는 에너지 테마 펀드가 강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거래소, 금과 관련한 일부 테마펀드의 수익률도 10%가 넘는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흥국 투자펀드

강세 이어져

중국투자펀드의 경우 투자지역 비중에 따라 성과가 엇갈렸다. 상해 증시가 긴축기조 확산과 차익실현 매물로 경계심리가 확산되며 급락세를 보였고 A주와 H주 동시 상장종목의 교차거래 방안 검토소식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투자비중이 높은 ‘PCACHinaDragonAShare주식A-1ClassA’ 펀드는 -2.62%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홍콩증시는 A, H 동시 상장종목의 교차거래 가능성 소식으로 투자가치가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 등

선진국 펀드 하위권

반면 일본 투자펀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CS일본SmallCap주식1ClassC1’펀드가 한달 동안 6.17%로 양호한 성과를 냈을 뿐 대부분의 일본투자 펀드들은 마이너스 수익률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유럽지역의 선진국 펀드들 또한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과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악화로 1~3%대의 수익률을 보였다.

■ 해외투자 주식펀드 3개월 성과 Top20

기준일: 2007년 11월 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기간수익률			투자지역
			1개월	3개월	연초후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 1종류A	미래자산	58,922	13.51	47.93	107.15	중국
슈로더차이나그로스주식종류-자(A)종류(A)	슈로더운용	21,865	16.95	45.48		중국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주식 1(CLASS-A)	미래자산	3,799	17.51	45.08		한중인
삼성H파트너중국주식자 1	삼성운용	3,763	13.77	44.26		중국
봉쥬르차이나주식 1	신한BNPP	31,182	14.22	42.97	83.91	중국
봉쥬르차이나주식 2종류A	신한BNPP	57,070	14.01	42.68	82.74	중국
KB차이나주식형자(Class-A)	KB운용	12,643	13.89	42.10		중국
미래에셋맵스오퍼튜니티베트남&차이나주식 1(C-A)	미래맵스	1,480	10.95	41.73		중베트남
피델리티차이나종류형주식-자(A)	피델리티	19,876	13.19	40.60		중국
우리CS중국인덱스재간접자 1C-e	우리CS	185	13.65	39.80		중국
푸르덴셜차이나주식 1(A)	푸르덴셜	2,494	11.52	39.49		중국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주식형자 1	미래자산	10,549	13.33	39.33	82.50	친디아
KB차이나포커스주식형재간접Class-C	KB운용	1,607	14.87	39.26	76.58	중국
한국월드와이드차이나주식A재간접V-1	한국운용	1,784	15.09	39.25	77.14	범중국
템플턴차이나드래곤주식형자(F)	프랭클린	134	16.83	38.15		중국
한국월드와이드차이나베트남종류주식K 1(A)	한국운용	2,399	15.46	37.69		중베트남
동부차이나주식 1ClassA	동부운용	711	11.71	36.98	97.84	중국
하나UBSChina주식자 1 Class C	하나UBS	5,625	12.89	36.84		중국
하나UBS차이나포커스해외주식자	하나UBS	1,734	13.18	35.91	81.30	중국
하나UBS중국주식해외재간접 1 CLASS C	하나UBS	466	13.69	35.17	78.93	중국

주: 설정액 100억원 이상 3개월 수익률 순

자료: 제로인

2. 2007년 10월 해외 펀드 동향

4) 해외 투자 리츠 재간접 펀드 성과

글로벌 리츠 지수 1.80% 하락

일본 리츠 지수 2.74% 하락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부진

‘아시아태평양리츠재간접’

4개월 연속 월간 1위

설정 원본액이 100억원 이상인 해외 투자 리츠 재간접 펀드의 10월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리츠 펀드가 손실을 내며 부진한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DJW 글로벌REIT지수와 일본 REIT지수는 각각 1.80%, 2.74% 하락했다.

미국 서브 프라임 부실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 지역의 리츠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 특히 일본REIT 지수는 미국 경제 둔화 전망으로 내년도 일본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일본의 금리인상의 시기는 늦춰졌지만 경기호황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의 실망감은 커진 셈이다.

펀드별로는 기은SG운용의 ‘아시아태평양리츠재간접’ 펀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며 4개월 연속 월간 성과 1위를 차지했다. 이 펀드는 일본지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리츠에 투자해 10월 한달 동안 3.8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블루랜드글로벌부동산재간접A’와 ‘삼성 글로벌리츠종류형재간접자 1_A클래’ 펀드는 각각 1.39%, 0.78%의 수익률로 소폭의 이익을 낸 반면 ‘삼성Japan Property재간접’ 펀드와 ‘한화라살유립리츠재간접 1(C2β)’ 펀드는 각각 3.75%, 5.81% 하락하며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제로인 펀드 애널리스트 조성욱 : www.FundDoctor.co.kr]

■ 해외투자 리츠재간접펀드 3개월 성과 Top10

기준일: 2007년 11월 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기간수익률			투자지역
			1개월	3개월	연초후	
아시아태평양리츠재간접	기은SG	766	3.89	13.62	26.37	아태(ex 일)
삼성 글로벌리츠종류형재간접자 1_A클래	삼성운용	100	0.78	8.26		글로벌
한화라살글로벌리츠재간접 1(B)	한화운용	1,199	-0.43	8.25	-3.99	글로벌
블루랜드글로벌부동산재간접A	우리CS	277	1.39	7.28	-0.29	글로벌
푸르덴셜글로벌리츠재간접 1(A)	푸르덴셜	900	-0.15	7.24		글로벌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디스커버리리츠재간접 1C-A	미래자산	309	0.11	6.16		아태
골드만삭스글로벌리츠ClassA	골드만삭스	6,700	-0.57	5.89	-2.27	글로벌
탐스글로벌리츠재간접 1A	신한BNPP	907	-0.92	5.61	-3.82	글로벌
CJ SLI Global Property 재간접1-B	CJ운용	1,892	-1.50	4.54	-1.93	글로벌
골드만삭스아시아리츠ClassA	골드만삭스	2,542	-2.64	-0.45	3.42	아태

주: 설정액 100억원 이상 3개월 수익률 순

자료: 제로인

3. 2007년 10월 펀드 자금동향

신흥국펀드 자금 급증...국내 주식펀드 자금 이탈

1) 개황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경기침체 및 기업실적 악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신흥국펀드로 자금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KOSPI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 주식펀드에서는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2) 제로인 분류기준 유형별 자금 동향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제로인 신유형을 기준(비평가 및 공/사모펀드 포함)으로 2007년 10월 자금증감을 조사한 결과, 전체 펀드시장 규모는 한달 동안 13조 1,026억원이 증가한 280조 8,83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결산으로 채투자된 금액(6조 5,355억원)을 제외하면 10월중 순증액은 6조 5,671억원으로 추정된다.

■ 제로인기준 유형별 설정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설정액			10월중		10월말	
	06년말	07.9월말	07.10월말	증감액	순증액	비중	
국내	주식형	428,455	555,278	586,248	30,970	-19,803	20.9%
	주식혼합형	34,540	32,121	34,660	2,540	1,784	1.2%
	채권혼합형	499,244	400,365	377,366	-22,999	-23,320	13.4%
	채권형	165,983	123,385	131,095	7,711	6,853	4.7%
	MMF형	571,873	510,751	528,829	18,078	17,415	18.8%
	부동산형	55,626	81,531	82,623	1,092	935	2.9%
	절대수익추구형	103,871	91,328	90,252	-1,076	-1,308	3.2%
	기타	292,299	352,398	373,375	20,977	20,662	13.3%
	소계	2,151,891	2,147,156	2,204,450	57,294	3,218	78.5%
해외	해외주식형	98,777	386,278	454,281	68,004	57,214	16.2%
	해외멀티에셋	7,368	8,052	23,089	15,036	14,970	0.8%
	해외주식혼합형	9,714	16,199	15,982	-217	-263	0.6%
	해외채권혼합형	18,004	13,904	14,113	208	207	0.5%
	해외채권형	8,621	14,064	13,611	-453	-680	0.5%
	해외부동산형	15,956	49,140	41,664	-7,475	-7,477	1.5%
	해외기타	24,473	43,018	41,646	-1,372	-1,519	1.5%
	소계	182,912	530,654	604,386	73,732	62,452	21.5%
합계	2,334,803	2,677,811	2,808,836	131,026	65,671	100.0%	

주: 제로인 신유형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사모 및 비평가 펀드 포함.

순증액은 증감액에서 재투자액(결산부분)을 제외한 순유입 자금임. 자료: 제로인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KOSPI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자금 유입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투자액(5조 774억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10월 한달 동안 1조 9,803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해외주식형 펀드는 신흥국 투자펀드로 자금이 몰리며 1개월 동안 6조 8,004억원이 증가하며 45조 4,281억원의 설정액을 기록했다. 채권혼합형 펀드에서는 2조 2,999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해 37조 7,366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해외부동산형은 한달 동안 15.2%(7,477억원)가 감소, 10월말 현재 설정액은 4조 1,66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06년말 투자자산의 91.2%가 국내투자였지만 2007년 10월말 현재 전체펀드의 78.5%만이 국내투자를 하고 있어 펀드시장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투자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산내 순수 주식형의 투자비중 또한 2006년말 22.6%에서 10월말 37.04%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0월 자금 13조 증가
설정액 280조원 돌파

해외주식형, 자금 유입
국내주식형, 환매 급증

포트폴리오 비중
국내(78%):해외(22%)
주식(37%):기타(63%)

3. 2007년 10월 펀드 자금동향

3) 자산운용협회 분류기준 펀드 유형별 자금동향

협회기준, 설정액 283조
연초후 20%(48.9조) 증가

자산운용협회에서 발표한 2007년 10월말 기준 자금동향을 분석한 결과, 10월말 현재 자산운용업계의 총 펀드 설정액은 283조 5,602억원으로 1개월 동안 약 4.8%(13조 136억원)가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0월 한달 동안 증감액이 연초후 증감액의 26.58%를 차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 협회기준 유형별 설정액 및 증감						단위 : 억원, %
구분	설정액			증감액		10월말 비중
	06년말	9월말	10월말	연초후	10월중	
주식형	464,894	839,607	945,521	480,627	105,914	33.3%
혼합주식형	88,799	93,780	113,573	24,774	19,793	4.0%
혼합채권형	391,298	321,105	336,697	-54,601	15,592	11.9%
채권형	504,155	462,862	449,579	-54,576	-13,283	15.9%
증권 소계	1,449,146	1,717,354	1,845,370	396,224	128,016	65.1%
단기금융(MMF)	571,529	509,713	526,682	-44,847	16,969	18.6%
파생상품	168,445	221,631	219,255	50,810	-2,376	7.7%
부동산	40,974	64,132	63,835	22,861	-297	2.3%
재간접	76,620	121,022	106,022	29,402	-15,000	3.7%
특별자산	39,341	61,581	64,405	25,064	2,824	2.3%
PEF	0	10,033	10,033	10,033	0	0.4%
총 계	2,346,055	2,705,466	2,835,602	489,547	130,136	100.0%

자료: 자산운용협회, 제로인

주식형 급증 지속,
10조원 유입, 비중 33%로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1개월 동안 10조 5,914억원이 증가한 94조 5,521억원을 기록했다.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 급증으로 투자자산 내 주식형 비중이 9월말 31.03%에서 10월말 현재 33.34%로 2.31%포인트나 늘었다. 같은 기간 재간접과 채권형펀드에서는 각각 1조 5,000억원, 1조 3,283억원이 감소한 반면 MMF의 경우 1조 6,969억원의 순유입이 발생했다.

4) 공모 해외펀드 투자권역별 자금동향

해외펀드 자금 유입 급증
10월, 7.3조 유입된 53.4조

신흥국 7.7조 자금 집중

중국펀드, 5.6조 유입
비중 30% 초과

역외펀드 순자산액,
5개월 만에 증가

미국의 경기둔화 및 고유가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공모 해외투자펀드로의 자금유입은 급증했다. 공모 해외투자펀드 설정액은 지난 1개월간 7조 3,627억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가 같은 기간 6조 8,495억원과 1조 4,809억원씩 증가한 반면 채권혼합형 335억원, 채권형 680억원 및 리츠재간접형에서는 8,190억원이 감소했다. 9월말 해외투자펀드 중 81.4%를 차지했던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10월말 83.0%까지 늘어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펀드의 수익률 호조에 힘입어 동북아시아 투자 펀드가 4조 7,280억원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기간 동안 글로벌신흥국에 1조 8,519억원, 아시아신흥국에 1조 503억원, 남미신흥국에서 959억원 증가하는 등 약 7조 7,261억원의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집중됐다. 이에 따라 10월말 현재 해외투자펀드 설정액은 53조 4,177억원을 기록했다. 연초 22.8%(3조 2,608억원)를 차지했던 해외투자펀드 중 순수 중국펀드 투자비중이 10월말 처음으로 30%(16조 407억원)를 넘어 중국 일변도의 투자패턴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흥국지역에 투자펀드의 비중 또한 연초 49.9%에서 10월말 현재 59.3%로 급증했다.

역외펀드는 전반적으로 주식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의 영향으로 순자산액이 소폭 증가했다. 9월말 역외펀드 순자산액은 2,979억원이 증가하며 12조 3,53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5개월만에 증가한 것이나 여전히 2006년말의 순자산액을 밑돌고 있다. 유형별로는 채권형 169억원, 혼합형 42억원 등 주식형(3,190억원 증가)을 제외한 전유형에서 순자산액이 감소했다.

3. 2007년 10월 펀드 자금동향

■ 공모 해외펀드 투자권역별 설정액 현황
- 전체펀드

단위: 억원, %

구분	투자권역	설정액					최근 지역비중
		06년말	07.9월말	07.10월말	10월증감	10월순증	
해외투자 펀드(역내)	글로벌	35,034	85,210	86,710	1,499	380	16.2%
	글로벌 신흥국	21,744	48,843	67,362	18,519	18,519	12.6%
	북미	152	376	295	-81	-81	0.1%
	남미		20,756	21,715	959	959	4.1%
	서유럽	784	23,704	16,696	-7,007	-7,007	3.1%
	동유럽	837	17,445	18,944	1,498	142	3.5%
	아시아태평양	21,774	29,956	26,813	-3,143	-3,143	5.0%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6,004	47,465	51,219	3,754	2,800	9.6%
	아시아신흥국	9,576	24,559	35,063	10,503	10,130	6.6%
	동북아	40,321	146,137	193,417	47,280	39,999	36.2%
	동남아	6,491	16,054	15,894	-160	-160	3.0%
호주권			45	49	5	5	0.0%
합계		142,716	460,550	534,177	73,627	62,542	100.0%
역외펀드	글로벌	15,569	18,409	18,869	460	460	15.3%
	글로벌 신흥국	8,817	6,294	6,411	117	117	5.2%
	북미	5,104	4,775	4,670	-105	-105	3.8%
	남미	3,364	9,486	10,065	578	578	8.1%
	서유럽	4,401	7,262	6,823	-439	-439	5.5%
	동유럽	8,910	8,731	8,851	121	121	7.2%
	아시아태평양	1,728	1,330	1,327	-3	-3	1.1%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1,083	1,402	1,441	39	39	1.2%
	아시아신흥국	10,923	5,372	5,697	325	325	4.6%
	동북아	68,697	51,610	53,649	2,040	2,040	43.4%
	동남아	339	5,788	5,644	-144	-144	4.6%
호주권		19	99	90	-9	-9	0.1%
합계		128,955	120,559	123,538	2,979	2,979	100.0%

- 주식펀드

구분	투자권역	설정액					최근 지역비중
		06년말	07.9월말	07.10월말	10월증감	10월순증	
해외투자 펀드(역내)	글로벌	10,027	51,549	42,622	-8,927	-9,718	9.6%
	글로벌 신흥국	17,643	41,784	60,636	18,852	18,852	13.7%
	북미	7	327	254	-74	-74	0.1%
	남미		20,650	21,520	870	870	4.9%
	서유럽	784	23,466	16,501	-6,966	-6,966	3.7%
	동유럽	837	17,445	18,944	1,498	142	4.3%
	아시아태평양	11,084	11,114	10,324	-790	-790	2.3%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4,917	45,599	49,585	3,986	3,048	11.2%
	아시아신흥국	9,386	23,992	34,446	10,453	10,080	7.8%
	동북아	36,235	133,825	183,622	49,797	42,517	41.4%
	동남아		5,310	5,100	-211	-211	1.1%
호주권			45	49	5	5	0.0%
소계		90,919	375,107	443,602	68,495	57,756	100.0%
역외펀드	글로벌	15,034	17,102	17,574	472	472	15.1%
	글로벌 신흥국	5,529	4,534	4,774	239	239	4.1%
	북미	650	513	469	-44	-44	0.4%
	남미	3,364	9,486	10,065	578	578	8.7%
	서유럽	3,833	7,047	6,618	-430	-430	5.7%
	동유럽	8,886	8,726	8,848	121	121	7.6%
	아시아태평양	1,728	1,330	1,327	-3	-3	1.1%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836	1,333	1,377	44	44	1.2%
	아시아신흥국	10,923	5,372	5,697	325	325	4.9%
	동북아	68,697	51,610	53,649	2,040	2,040	46.2%
	동남아	339	5,788	5,644	-144	-144	4.9%
호주권		19	99	90	-9	-9	0.1%
소계		119,841	112,942	116,132	3,190	3,190	100.0%

주: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주요자산기준 국내증권에 60%이상 투자하거나 운용전략상 상당기간 그럴 가능성이 높은 펀드)가 아닌 펀드임. 해외(역내)는 설정액 기준, 해외(역외)는 국내판매 순자산액 기준임.
순증액은 월증감액에서 재투자액(결산부분)을 제외한 순유입 자금임.

자료: 제로인, 리퍼

3. 2007년 10월 펀드 자금동향

5) 운용사 및 펀드별 자금동향

미래에셋자산,
자산운용업체 10월
증가액의 51.8% 흡수

2007년 10월 운용사별 설정액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한달 동안 6조 7,361억원의 자금이 몰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설정액 증가 1위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0월말 설정된 '미래에셋인사이트혼합형'펀드(1조 5,797억원)를 비롯해 중국펀드(2조 2,222억원) 및 국내 주식형펀드(1조 9,200억원)에 자금이 몰리며 설정액이 급증했다. 또한 슈로더투신운용과 신한BNP파리바투신 등은 중국, 브릭스와 같은 신흥국투자펀드의 인기몰이에 힘입어 설정액이 증가했다.

■ 2007년 10월 간접투자기구 설정액 증감 상위 운용사

단위 : 억원, %

회사명	전월말 대비 설정액 증감							수탁고	수탁고 비중
	증권	MMF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기타	계		
미래에셋자산운용	66,761	-726	1,072	0	254	0	67,361	365,834	12.9%
슈로더투신운용	17,327	0	-1	0	-468	0	16,858	74,484	2.6%
신한BNP파리바투신	10,954	-1,466	88	0	-1,334	0	8,242	126,554	4.5%
한국투신운용	367	7,673	-164	0	-380	-106	7,390	170,985	6.0%
피델리티자산운용	7,460	0	0	0	-459	0	7,001	36,543	1.3%
NHCA자산운용	510	6,098	252	0	24	0	6,884	84,347	3.0%
CJ자산운용	7,313	184	441	-500	-539	-60	6,839	92,845	3.3%
KB자산운용	6,731	-1,011	-625	-788	184	1,788	6,279	141,813	5.0%
하나UBS자산운용	2,709	4,339	-593	0	-508	0	5,947	200,868	7.1%
삼성투신운용	3,744	-1,127	301	0	835	0	3,753	224,953	7.9%
자산운용 합계	127,968	16,969	-2,376	-297	-15,000	2,824	130,088	2,830,101	100.0%

자료: 자산운용협회, 제로인

설정액 1조원 돌파
공통펀드 19개로

주식형 및 혼합주식형의 10월 설정액 증감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설정액 증가액의 52.3%가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에서 이뤄짐에 따라 설정액 증감 1위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차지했다. 또한, 운용펀드 수는 적지만 브릭스 및 중국펀드로 자금이 몰린 슈로더투신운용 및 신한BNP파리바투신이 돋보였다. 한편, 주식형펀드의 설정액 급증에 힘입어 2007년 10월말 현재 19개의 펀드가 1조원의 설정액을 돌파하며 공통펀드로 자리매김했다.

■ 2007년 10월 주식형 및 혼합주식형 설정액 증감 상위 운용사

단위 : 억원, %

회사명	2007년 9월말		2007년 10월말		10월중 증감			비중
	주식	혼합주식	주식	혼합주식	주식	혼합주식	계	
미래에셋자산운용	242,119	1,686	291,805	17,719	49,686	16,033	65,719	52.3%
슈로더투신운용	48,174	5,172	65,805	4,968	17,631	-204	17,427	13.9%
신한BNP파리바투신	67,767	389	78,743	657	10,976	268	11,244	8.9%
피델리티자산운용	26,881	-	34,352	-	7,471	0	7,471	5.9%
KB자산운용	22,064	765	28,470	803	6,406	38	6,444	5.1%
CJ자산운용	21,128	1,040	24,165	1,133	3,037	93	3,130	2.5%
한국투신운용	52,445	11,668	54,278	12,404	1,833	736	2,569	2.0%
KTB자산운용	20,195	2,731	22,537	2,848	2,342	117	2,459	2.0%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12,218	1,536	14,532	1,621	2,314	85	2,399	1.9%
칸서스자산운용	8,264	524	10,447	594	2,183	70	2,253	1.8%
자산운용 합계	838,086	89,848	944,000	109,593	105,914	19,745	125,659	100.0%

자료: 자산운용협회, 제로인

6) 펀드 유형별 자금동향

미래에셋운용
인사이트혼합형 펀드에
1조원 이상의 자금 몰려

2007년 10월 개별펀드 설정액 증감을 살펴보면 전 유형을 통틀어 1조 3,692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미래에셋인사이트혼합형자(C-A)'가 1위를 차지했다. 이 펀드는 투자자산에 제한이 없는 멀티에셋 펀드로서 적극적 자산배분을 통한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해외주식형에서는 같은기간 1조 768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미래에셋차이나

3. 2007년 10월 펀드자금 동향

일부 국내주식형 펀드
재투자액 감안 시
1조원 이상 순유출 기록

솔로몬주식 1종류A'가 가장 큰 설정액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주식형에서는 4,421억원의 자금이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 3CLASS-A'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삼성그룹적립식주식 1Class A'와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 2(CLASS-A)'가 재투자액을 감안할 시 각각 1조 4,005억원과 1조 1,981억원의 자금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근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 주식형 2007년 10월 설정액 증감 상하위 펀드

단위: 억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9월말	10월말	증감액	순증액	투자스타일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3CLASS-A	미래에셋자산	20051207	9,421	13,842	4,421	4,421	대형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K- 2Class A	미래에셋자산	20061019	9,081	17,582	8,500	1,736	대형혼합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4 C-A	미래에셋자산	20070918	107	1,688	1,581	1,581	대형혼합
삼성배당주장기주식 1	삼성운용	20050510	1,367	2,787	1,420	1,420	대형혼합
미래에셋솔로몬주식 1	미래에셋자산	20021203	7,764	8,914	1,150	1,150	대형혼합
세이가치형주식(종류형)A 1	SEI에셋운용	20061017	2,873	4,128	1,255	-706	중형가치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주식K- 1	미래에셋자산	20040102	18,953	18,226	-727	-727	대형혼합
KODEX 200 ETF(삼성)	삼성운용	20021011	4,465	3,348	-1,116	-1,116	대형혼합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 2(CLASS-A)	미래에셋자산	20051101	15,518	16,121	603	-11,981	대형혼합
한국삼성그룹적립식주식 1Class A	한국운용	20041101	23,080	23,294	214	-14,005	대형성장

■ 해외주식형 2007년 10월 설정액 증감 상하위 펀드

단위: 억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9월말	10월말	증감액	순증액	투자지역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 1종류A	미래에셋자산	20060320	17,285	28,053	10,768	10,768	중국
봉쥬르차이나주식 2종류A	신한BNPP운용	20060404	21,260	30,172	8,912	8,912	중국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A- 1	슈로더운용	20060213	10,968	18,640	7,672	7,672	브릭스
KB차이나주식형자(Class-A)	KB운용	20070614	2,661	8,023	5,362	5,362	중국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E)	슈로더운용	20051212	10,114	14,998	4,884	4,884	브릭스
골드만삭스-맥쿼리글로벌인프라(자)1ClassA	골드만삭스운용	20070226	5,647	4,193	-1,453	-1,453	글로벌
슈로더유로주식종류형-자(A)-종류(A)	슈로더운용	20070305	4,153	2,686	-1,466	-1,466	유로권
봉쥬르유럽배당주식 1	신한BNPP운용	20050523	5,463	3,735	-1,728	-1,728	유럽
삼성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 1_A	삼성운용	20070412	6,483	4,682	-1,801	-1,801	글로벌
프랭클린템플턴태평양주식형자(A)	프랭클린운용	20060509	6,302	4,463	-1,839	-1,839	일본

■ 해외부동산형 2007년 10월 설정액 증감 상하위 펀드

단위: 억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9월말	10월말	증감액	순증액	투자지역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디스커버리채권간접 1C-A	미래에셋자산	20070629	299	299	0	0	아태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디스커버리채권간접1C-C	미래에셋자산	20070704	0	0	0	0	아태
미래에셋유라시아디스커버리채권간접 1C-A	미래에셋자산	20070629	98	98	0	0	글로벌
한화라살글로벌채권간접 1(W)	한화운용	20060918	22	23	0	0	글로벌
미래에셋글로벌디스커버리채권간접 1CLASS-C	미래에셋자산	20070711	0	0	0	0	글로벌
골드만삭스아시아리츠ClassB	골드만삭스운용	20060515	3,093	2,513	-580	-580	아태
Japan REITs채권간접 1	한화운용	20050316	3,521	2,723	-798	-798	일본
골드만삭스아시아리츠ClassA	골드만삭스운용	20060515	3,617	2,818	-799	-799	아태
삼성Japan Property채권간접	삼성운용	20060509	3,967	2,959	-1,008	-1,008	일본
골드만삭스글로벌리츠ClassA	골드만삭스운용	20050530	8,855	6,868	-1,987	-1,987	글로벌

■ 채권형 2007년 10월 설정액 증감 상하위 펀드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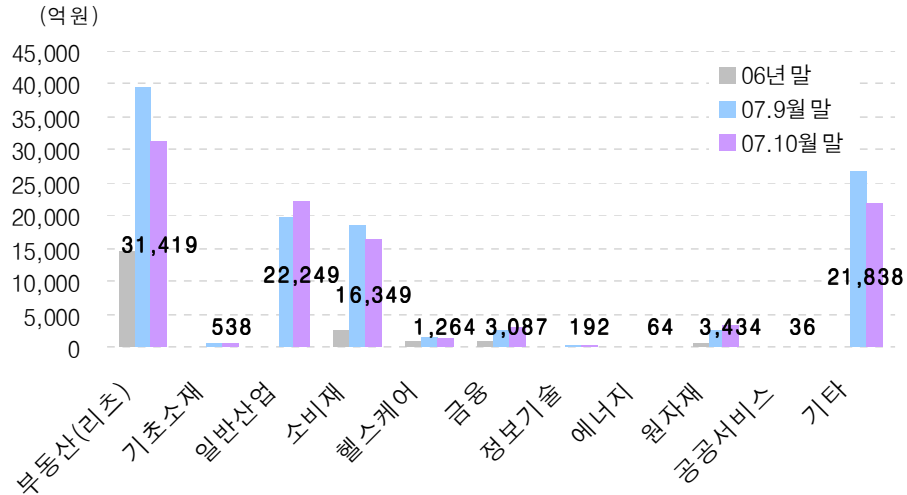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9월말	10월말	증감액	순증액	투자스타일
하나UBS단기채권혼합 1	하나UBS	20060825	252	3,249	2,998	2,998	단기중등급
동양매직국공채 1ClassC- 1	동양운용	20071004	-	300	300	300	
PCA스탠다드플러스채권I-34ClassC-F	PCA운용	20040102	1,945	2,171	226	226	중기고등급
한국부자아빠업브렐러채권혼합증권A- 1	한국운용	20040702	256	390	134	134	단기상등급
동양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투자 2Y- 3	동양운용	20070918	13	67	54	54	
하나UBS 중기채권투자신탁(제1호)	하나UBS	20051129	765	665	-101	-101	단기중등급
동양High Plus채권 1classA	동양운용	20050427	631	508	-122	-122	중기중등급
하나UBS채권혼합 4	하나UBS	20070417	508	366	-142	-142	단기고등급
도미치코리아채권I- 1ClassA	도미치운용	20031013	1,189	994	-195	-238	중기중등급
Tomorrow장기우량채권K- 1 ClassA	교보운용	20060905	9,485	8,866	-620	-620	장기고등급

주: 해외부동산형은 리츠채권간접 펀드와 직접투자 펀드를 포함한 것임.
순증액은 증감액에서 재투자액(결산부분)을 제외한 순유입 자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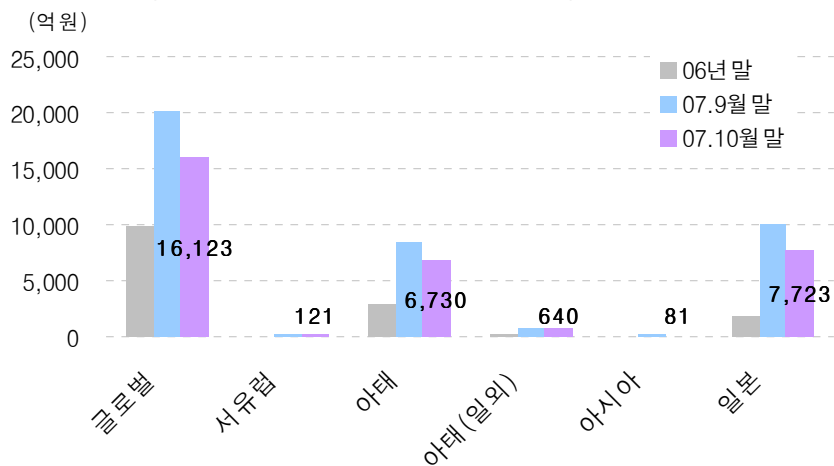
자료: 제로인

3. 2007년 10월 펀드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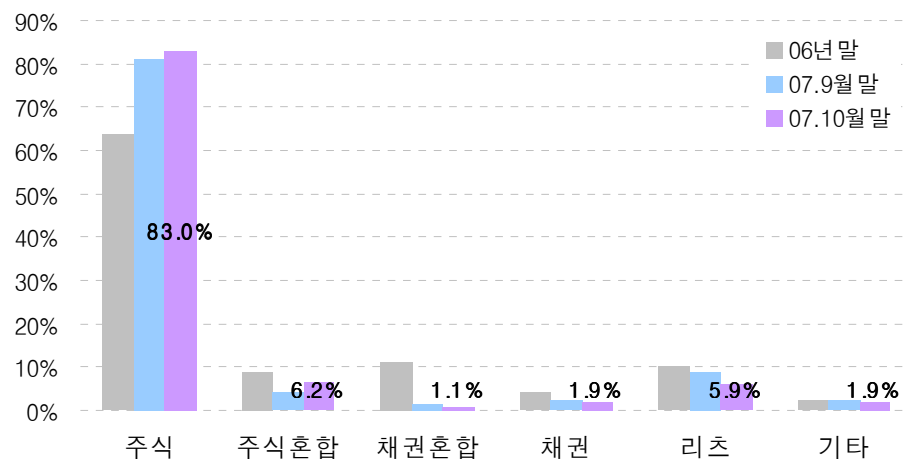
해외투자 섹터펀드 수탁고



해외리츠 재간접펀드 투자지역별 수탁고



해외투자펀드 유형별 수탁고 비중



자료: 제로인